



주말 쇼핑

졸업·입학선물 뭐가 좋을까

실속? 고가?...마음 담아주세요

졸업·입학 시즌이다. 중·고교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새 출발을 하는 이들에게 알맞은 선물을 무엇일까. 광주지역 백화점 매니저들의 추천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선물 아이템을 추천받았다.

사회초년생 서류가방 안성맞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화장품이나 다이어리 등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선물이 좋다. 또 명함지갑(3만원부터~), 서류가방(10만~20만원대)같은 실용적인 비즈니스 소품도 제격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재국 잡화파트 매니저는 스케줄 관리와 지갑기능을 갖춘 메트로시티 다이어리(14만1천원)를 추천했다. 또 초보자들도 쉽고 빠르게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일체형 화장품 메이크업 포에버 7종세트(6만원·세도우, 립글로스, 브러시, 케이스 등)를 꼽았다.

여대생 센스있는 뷰티 아이템

화장을 시작하는 여대생에게는 뷰티 아이템

이 좋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최영민 잡화팀장은 입술을 붉게 보이게 하는 틴트(베네푸트·4만5천원)와 공부하느라 지친 피부에 영양을 줄 수 있는 영양 크림(더바디샵·2만~3만원대)과 립케어(1만5천원) 제품을 권했다.

이밖에 포인트 헤어핀(아가타·2만4천원), 귀걸이(모네·1만~5만원대)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천했다.

중고교생 중·저가 운동화 제격

외모에 한참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좋아하는 캐주얼 브랜드의 가방이나 옷, 운동화 등 패션상품도 좋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유상범 남성·스포츠 팀장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노스페이스 바람막이(15만원 이상)와 나이키 올백 운동화(11만9천원)를 추천했다.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2만~4만원대의 컨버스화도 좋다. 교복이나 청바지와 함께 부담없이 신을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아

템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8일까지 '헤드·EXR 학생용품 대전'을 열고 학생용 가방(2만원대부터), 캐주얼화(3만대부터) 등을 선보인다.

디지털 제품 누구에게나 인기

졸업·입학 시즌 선물이란 단연 인기있는 아이템은 전자제품이다. 미니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플레이어), 휴대전화, 전자사전, MP3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민호 가전파트 매니저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미니노트북(아수스·49만9천원)을 추천했다.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인터넷 강화를 수강하거나 강의실을 옮겨다니는 등이동이 많은 대학생에게 인기가 있다.

또 중·고생들에게는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터치'(8GB·28만원)를 권했다. 동영상 재생 기능은 물론 무선 인터넷도 가능하고 내보내기 기능도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워크아웃 살려야 할 기업 살려라”

금감원, 대기업 재무구조 상시모니터링 한나라 최고위 “中企 구조조정 신중해야”

금융감독원이 대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보고자료에서 금융권의 여신규모가 큰 대기업그룹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44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작년 9월 말 기준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도록 주채권은행에 최근 통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분간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분기 단위로 재

무평가를 실시해 보고하도록 했다.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민간 주도의 2차 구조조정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은 2차 신용위협평가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작년 말 기준 재무제표가 나오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시공능력 100위 이하 건설사와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 중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다.

금감원은 건설 및 조선업체 1차 평

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체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자금현황 등을 점검하며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이견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은행 간 협약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기업 구조 조정 관련, “살려야 할 기업은 살려야 한다”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의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광주 첨단지구내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백용호(뒷줄 왼쪽부터 네번째)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사무소 현판식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신학기 교복가격 담합 등 서민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감박 농친 연말정산 내달 10일 이후 신청하세요

한국농어촌연맹은 2008년 연말정산 때 농친 소득공제는 오는 3월 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연맹이 밝힌 농친이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회사식 약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농친이 쉽다.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

자도 추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 소규모 개인 회사에서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모위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최소한의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추가환급 대상이다.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한 근로자 = 해외출장 및 근무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도 5년 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역전세 대출 주택당 5,000만원

‘전세금 반환보증제’ 6일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5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고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 원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

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에서 신청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연합뉴스

새 얼굴

“서민들 신용회복 적극 돕겠다”

김태규 자산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 김태규(52)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의 지원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장은 또 “채납자 재산 공매 업무 위약을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 자립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 출신인 김 지사장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에 입사해 인사부 총무실장, 국유재산 관리 2부장 등을 지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

Advertisement for 'Bank of Jeonnam' (광주신세계백화점) featuring various financial services like 'Loan Guarantee' (담보대출) and 'Business Loan' (사업자대출) with interest rates and terms.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Travel Package' (제주도 여행) by 'Jeju Woori Credit Card' (제주우리카redit) with a price of 89,000 won and details on travel dates and services.